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문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심의 고비용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양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어떤 마음으로 공부해야...

문 스님, 평소 때 마음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힘든 일이 생겼을 때는 그 일을 주인공에 믿고 놓는 식으로 공부를 한다면 별 다른 일이 없는 때에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할까요? 그저 단순히 명상에만 잠긴다고 공부라 되는 것은 아닐테고요. 조금이나마 주인공을 느끼고 있는 경우에도 계속해서 '주인공, 당신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당신이야.'라고 관하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어떤 마음으로 공부를 계속 해나가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답 앓고 서고 먹고 자는 생활을 몸 흐르듯이 해나가면서 그렇게 하게 하는 힘이 누구인가를 놓치지 않고 계속 지켜봐야 하겠죠. 친밀하게 믿고, 배워나갈 때에는 이 이를 찾고 저 이를 찾고, 이 사람이 이러면 이렇게 듣고 저 사람이 저러면 저렇게 듣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걸 들더라도 그것을 듣게 한 그 자리에, 잘 된 것이 있다면 감사하게 돌려놓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잘못되는 것도 그 자리에서 나오는 거니까 좋게 돌아가도록 다시 그 자리에 돌려 놓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책을 보더라도 내 주인공 불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책을 보게 되는 거지 내 근본이 없다면 어떻게 책을 볼 수 있겠습니까? 듣는 거, 보는 거, 말하는 거 모두가 다 근본 자리가 있기 때문에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뇌질 때는 바로 자동적인 컴퓨터에 입력된 게 없어지듯이 그렇게 없어지면 새로이 입력하는 게 다시 현실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인간으로 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 어느 사찰에서, 절에서는 재사를 지내면 항상 헌식을 하는데, 밥과 과일 멀은 거를 넓은 들 밑에 놔두면 벌레들이 와서 먹기도 하고 날아가는 새들이 먹기도 하고 그러죠. 그렇게 못 생명을 위해서 갖다가 놓는 겁니다. 그런데 큰 구멍이 들 밑에서 그걸 받아먹으면서 한 이 년 남짓 살다보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부처님 찾는 거나 똑같이 생각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 스님이 나와서 먼 산을 보고 있는데 들 밑에 있던 구멍이 나와서 하는 소리가 '스님처럼 저도 사람이 될 수는 없을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는 도승들이나 들지 보통 사람은 못 들죠. 그러니까 '될 수도 있지만 그 어려운 고비를 어떻게 넘기겠느냐?' 하니까 '죽더라도 꼭 그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하는 말씀이, '3백 명을 꼭 교화를 시켜서 이 도리를 가르쳐 줄뿐만 아니라 법당에서 스님이 법을 설하거나 또는 예 불을 올리거나 하면 항상 그 분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들을 수 있겠느냐. 셋째는 삼년 동안을 이슬만 받아먹고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구멍이는 그것 보다 더한 거라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슬만 받아먹고 들어가고 그러면서 헌식 하는 것도 그때서부터는 안 먹고, 자기 동료들을 교화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꼬트머리에 한 가지 또 뭐라 그랬느냐 하면, 장독대에 가서 장을 얻어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먹는 장 받음을 얻어먹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 향아리를 넘어 들어가는 게 아니다. 장을 드러왔을 때 떨어지는 방울을 먹어야 마지막에 인간으로 환도할 수 있다고 했던 말입니다.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스님이 말씀한 거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노력을 안 하고 그 뜻을 배울 수는 없다는 겁니다. 또 노력하지 않고 차원이 높아질 수도 없고 노력 않고서 스스로 여여하게 살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모두가 다 그렇죠. 그런데 그 구멍이는 그걸 이겨냈습니다. 이겨내서 거길 떠나지 않고 공양주가 간장을 쓰면서 떨어뜨린 거를 받아먹으려고 기다리거나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또 한 번 받아먹고 또 한 번 받아먹고 세 번 받아먹는 데에 삼사 년이 넘었던 얘깁니다. 그러니 얼마나 깊은 의지와 깊은 뜻이 거기 서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구멍이는 사람으로 인도환생을 하는데, 그것도 빠따귀만 남아가지

한 철 사는 동안 벗어나야...

노력 않고 차원 높아질 수 없고
노력 않고 여여하게 살 수 없다

고 너무나 애절하게 굴기 때문에 그 모습을 벗고 인간으로 환생을 하는데 그 스님이 인도를 했답니다. 자손 없는 집으로 인도를 한거죠. 그거는 부처님의 일기 때문에 여러분이 듣기에는 황당하게 들릴지 몰라도 부처님의 연기법이라는 것을 허투로 생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그 모습 하나 벗기가 그렇게 어렵단 말입니다. 또 끼리끼리 토끼 모습을 벗기가 어렵고 새라면 새 모습을 벗기 어렵고, 인간이 되는 데는 부처님 경지에 이르러서야만이 사람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돼 가지고도 99%가 자기 자신부터 알아야 한다고 얘기했죠.

사람이 소로 살다가 그 소의 습을 놓지 못해서 도로 소로 태어나고, 사람도 그런 생각이 없이 그냥 살다가 보면 회향을 잘못해서 도로 중세계 차원의 삶에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또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철 사는 데에 우리가 지금 필연적으로 해야 할 문제는 바로 이것을 벗어나야 된다는 얘깁니다. 깨우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불기둥이 자기를 움켜쥐게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몸뚱이는 거기에 수레와 같이 중심을 끼어서 돌아가니 불성은 움켜쥐지 않아도 항상 힘을 배후해 줍니다. 우리는 이 옷을 벗을 때까지라도 열심히 해서 차원과 모습과 또는 삶을 다시금 나올 때 고통받지 않게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남들을 건져주죠.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어떤 거를 막론해 놓고 잘하든 못하든 상대가 좋든 나쁘든, 좋은 거는 좋은 거대로 놓고 나쁜 거는 나쁜 거대로 놓되 한 군데다 놔야 합니다. 우리가 나온 구멍이 그 구멍이기에 들어가는 구멍도 그 구멍이고,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자체도 없는 자유 자재권을 인가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인욕바라미를 실천하려면...

문 부처님 전에 오계를 받고 참다운 불자로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불자입니다. 그런데 사회생활을 하다가 저도 모르게 보고 듣는 것들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음탕하고 망적인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이러면 안되지.' 하면서 참고 인욕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참는다고 다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오계를 받은 불자로서 오계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더 힘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생활 속에서 사된 행을 하지 않고 인욕 바라미를 실천해 나갈 수 있는지 가르쳐 바랍니다.

답 내가 항상 비행기 프로펠러 돌아가듯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간다고 말을 합니다. 시공이 없이 돌아간다고요. 그렇게 빨리 돌아가는데 업보 불을 자리가 어디 있고, 아니, 마음이 설 자리가 어디 있고, 또 거기 먼지같은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이 정맥·동맥이 돌아가듯 그냥 막 뛰고 돌아가는 판국에 뭐가 불을 자리가 있느냐 이 소립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살아 나온 관습에 의해서 잠재해 있던 것이 일어나죠? 또 바깥에서 보고 듣는 대로 일어나죠? 그러니까 일어나는 그 자체를, 그것이 망상이다 업보다 이리저리 마시구요, 한번

다 같이 공부하려면...

문 마음공부를 하면서 내가 몸을 받을 때 나를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게 남의 것이 아니라 내 탓이라는 것도, 내가 죽어야 나를 볼 수 있다는 스님의 법문 또한 가슴 깊이 새기고 싶습니다. 이것도 저의 욕심인지 모르겠습니다. 남편도 주위 사람들도 다 같이 마음 공부를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램인데 어떤 때는 답답한 생각이



그림 · 최주현

인욕은 참는 게 아니라 일체를 돌 아니게 보고 모든 것을 놓아가는 것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유인이 될 수 있는 100%의 잠재력이 있다면, 자주 생각이 나와야, 요것도 나오고 조것도 나오고, 요것도 보고 조것도 보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나올 수 있어야 목적이 아니지, 그리고 성불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지, 아니 요런 생각 조런 생각이 나오지 않는다면 목적이 그게 사립입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망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바로 자생중생들이 자주 생각을 나오게 하는 건데 그 나오게 하는 것을 업보나, 무슨 망상이니 이러고 퇴박을 하니깐 '예이, 망상이라 그러는데 망상 좀 실컷 해봐라.' 이러곤 그냥 망상으로 밀어 가는 형국이라는 겁니다.

들어 설명도 해 보지만, 이런 것도 다 놓아야 되겠어요? 모든 게 다 나 아님이 없다는 스님의 말씀처럼 돌이 아님을 알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 보십시오.
답 집집마다 어떤 경우에는 부인이 안 따라오는 분도 있고, 또 남편이 안 따라오는 분도 있고요. 그런데 그걸 강제로 하면 부러지고, 또 너무 느긋하게 해서 안 되고, 그러니까 강도를 맞게 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전자보다 아주 달라져야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남편이 안 따

그러서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지킬 수 있고, 지킨다 지킨다 하면서 못 지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 오계도 제대로 못 지키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계율을 지킨다 안 지킨다는 양면을 다 놓고 욕심과 집착과 관습을 다 놓아버리게 된다면, 그냥 놓고 우리가 가지 않습니까? 놓고 가는 도중에 우리가 계율을 지킨다 안 지킨다를 떠나서 그냥 계율을 지키게 되는 거죠. 계율을 다 지키는 거죠. 계율 안 지키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바닷물과 같이, 허공과 같이 돼라 그랬습니다. 허공에 모든 게 다 있어도, 그 허공을 찌고 돌아가지 마. 별 물이 다 들어가도 그냥 한 바다의 물로 돌아가고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

라오더라도 부인이 상당히 수준이 높아지고 자비를 베풀고 전자보다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면 처음에는 얼마 동안이고 모르다가 '내 아내가 많이 달라졌구나! 거기가 어딘가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남편이 달라졌을 때는 아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생각은 하는데도 자기가 세웠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저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습니다. 그것을 따로

보지 마세요, 언제나. 따로 보지 마시고 항상 '내 마음이 이러니까 네 마음도 둘 아는데 이렇게 되겠지.' 하고 믿어요. 믿고 거리감을 두지 마세요. 나를 안 따라 온다는 거리감 말입니다. 여여하게 그냥, 안 따라 온다는 생각이 다 그냥 놓으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착이거든요. 그걸 다 놓으세요. 그냥, 모든 것을 주인공을 믿고 거기다가 맡겨 놓으면 스스로 돼요.

그래서 이런 인연 만나는 거는 천 년에 한 번 만나기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러는데 그런 마음이 얼른 닿았어요? 그러니까 자주 재주를 부려야죠. 그렇게 해서 공부해 온 건수가 생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건수를 만들라는 말입니다. 너무 잘못 되게 하면 지레 겁을 먹어서 안되니깐 편안하게 오게끔 자주 건수를 만들라는 얘깁니다. 당신이 다리를 놓지 않으면 누가 놓겠습니까.

그러니까 한생각만 잘하면 올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한생각을 잘해도 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마음을 마음대로 응용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 영혼을 붙들고 통하게끔 해야지 몸을 붙들고 말로 하고 몸뚱이를 끌고 그러면 끌어지지 않아요. 그것은 마음으로서 마음을 끌어야 되는 거지 아무리 말로 하고 몸뚱이를 끌고 해봤자 자주 달아나는 걸요. 오히려 핑계 대고 조리 핑계 대고 그러면서요.

자식들이나 형제들이 나가서 안 들어오고 그럴 때도, 또 도둑질이나 하고 아주 나쁜 일을 하고 다니거나 이래도 그 거를 사해줘야 하고 들어오려고 하면 그거를 관해줘야 돼요. 그리고 본인한테는 나쁜 말 하지 말고 나쁘게 행동하지 말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붙들고 '돌이 아니네, 주인공 돌이 아니네' 너도 마음에서 잘 이끌어갈 자격이 있

데 그걸 구정물이다 맑은 물이다. 똥물이다, 흙물이다 그러지 않고 그냥 어느 물이든 다 받아들이고 어느 물이든 다 갖는다는 것이 바로 그거다. 이런 물 저런 물 따질 것이 없이 그냥 하나로 갖는다. 어떤 거든지 다 갖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계율이라는 것이 우리가 억지로 지키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라 내가 탐심도 없고 집착도 없고 또는 남을 모함하지도 않고 들로 보지도 않고 모든 걸 그렇게 해나간다면, 공심으로 계율을 지킨다 안 지킨다를 떠나서 하나도 지키지 않는 게 없이 되는 거죠. 내 아픈같이 생각하기에,

그리고 인욕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모든 게 마음에서 일어나는 건데 참는 게 인욕이 아니에요. 참는 것이 인욕이라고 그러면 안되죠. 놓는 것이 그냥 인욕이요. 놓는 거, 내가 찾았다고 그러지 않고 '놓아라' 이랬죠. 들로 보지 않기 때문에 놓으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찾았다면 돌이 되니까 그냥 놓아라. 너한테 보려면 내가 너한테 보려면. 그래서 찾는 게 아니라 그냥 놓는다고 한 겁니다. 일체를 나의 근본과 돌 아니게 보는 마음으로 하나로 모아서 모든 거를 한 구멍에 놓아 나간다면 그대로 그것이 인욕이고, 참다운 계를 받은 바깥에 있는 것이 되고, 지킨다 안 지킨다 가 없이 그대로 모든 도리를 스스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장아' 하고 자주 관하면 주인공 자리에 서 그걸 이끌어줘요. 그렇게 해야 만이 거기에 선도 닿고 그렇다는 것을 믿고 부드럽게 하면서 스님네들한테 관하는 법 좀 가르쳐 달라고 해서 자주 마음을 이끌어 줘요. 그러다 보면 인연이 되게 돼있어요. 우리가 과거로부터 인연이 있기 때문에 만난 거예요. 과거로부터 인연이 없었으면 이렇게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마음과 마음이 연결이 돼야 이

끌어지는 거지 마음과 마음이 연결이 안 되면 상당히 오래 가게 돼 있으니 모든 분들이 직선적으로 들어가는 이 마음공부를 필연적으로 해서 자활(自活)을 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가피를 받을 수 있다는데...

문 스님의 법문을 알게된 지 십 수년 이 지났으나, 근기가 낮아서 그런지 주인공을 찾다가도 화두 참선을 하거나 최근에는 염불 참선을 하기도 하는 등 계속 한 길로 나아가지 못하고 다른 길로 많이 맴돌았습니다. 최근에는 오랫동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 하는 일마다 좋지 않아 염불을 많이 하여 벗어나려 하였으나 하면 할수록 가슴만 답답해져 더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다시 주인공에 간절히 끌리고 관하자 마음이 편해지고 이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스님의 법문 중에 여러 불보살을 밖으로 찾아서 기도하다가 잘못되기도 한다고 그러셨는데 다른 스님의 법문은 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은 우주 최고의 음이고 진여불성 자리이기 때문에 간절히 할수록 가피를 많이 입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답 살다 보면 여러분이 어떤 때는 생활에서 짓밟힌 것 같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주인은 땀땀하고 도도하게 자기를 유(有)의 법이나 무(無)의 법이나 도도하게 흐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체득을 못하면 '이렇게 되니깐 이제 큰일났구나.' 이러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당신이 다 알아서 해. 내가 이 자리에서 알아서 죽든 나가서 죽든, 병이 들어 죽든 나한테 아랑곳없다. 네가 끌고 다니는 거니까 알아서 해.' 하고 놔둘 때에 비로소 주인이자 나를 끌고 다니는 시자가 되니, 이 몸뚱이는 시자라 했는데 마음이 주인이자 또한 시자거든요. 시자이자 주인이고, 돌이 아닙니다. 처음에 배울 때는 주인공이라고 했는데, 주인공이 바로 자기 시자이자 주인이자 부처이자 자유인입니다.

기도나 염불을 하는 것도 바깥으로 꼬달리지만 안는다면 그렇게 될 수는 있죠. 그렇게 될 수는 있으나, 버스 지나간 뒤에 버스를 타려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옛날에 어떤 스님이 자기 자신에게 '주인공'하고 불렀습니다. 부르고는 '너 아침 공양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자신이 또 대답을 했습니다. '식기 닦았습니까?' 하구요. 그러니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한 발 떼어놓고 한 발 없었는대, 또 한 발 떼어놓고 한 발 없었는대, '밥을 먹었느냐?' 하니까 벌써 '식기 닦았습니다.' 이거예요. 벌써 한 발 떼어놓고 말입니다.

그런데 염불을 한다고 하는 사람은 염불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는 거거든요. 염불을 한다고 생각을 안 한다면 몰라도, 물론 시간이 초월이 돼서 빠르다고 더디고 가 없다고 하지만, 염불을 해서 그것을 이를 양으로 애쓰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그건 더디다 이거죠. 벌써 밥을 먹고 식기를 닦았는데 식기 닦은 뒤에 밥을 먹었느냐 하는 격이니, 그러니까 버스 타고 간 뒤에 버스 찾는 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염불을 한다, 내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 참선을 한다, 기도를 한다.' 하고 그 내가 불한다면 더디 가는 길이다 이겁니다.

상황이 힘들어지면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것저것 기웃거리게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앞에 가로막힌 그 벽을 뚫고 나갈 수도 없고, 모든 상황이 나를 죄어 온다는 생각이 들 때에, 아주 급박할 때에 오히려 공부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렇게 급박하게 만들어 놓는 것도, 어떻게 빠져나갈 구멍이 없이 만들어 놓는 것도 바로 자기 주인공이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즉 말하자면 자기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몸도 만들었는데 자기가 또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하게 한다는 것을 얼른 알아야 합니다. 공부를